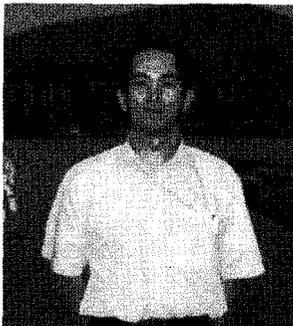


각국의 참석자들이 회의 첫날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제12회 세계에이즈회의의 참관기



우준희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감염내과
본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후천성면역결핍증 학회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대변되는 제3세계와 유럽과 북미로 분류되는 선진국간의 의료, 사회 경제적 차이를 줄이고 상부상조하자는 뜻의 'Bridging the gap'을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6월 28일 김포를 이륙한 뒤 10시간여 만에 도착한 파리의 샤를르드골

공항에서 비행기 안에서 익숙해진 피곤감을 프랑스의자에서 풀려고 앉았을 때는 마침 '98 프랑스 월드컵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파리의 공항에 놓인 텔레비전 화면은 우리나라의 가전삼사가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던 제품의 화면보다 훨씬 뒤져있음을 느껴 우리의 전자기술이 결코 이들에 뒤지지 않음을 느꼈음에도 자신감

보다 우리가 처한 여러 경제적 현실이 때 올라 일순 비탄감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의 회사가 불란서회사를 합병하려고 하였을 때 불란서인들이 반발하였던 점은 그들의 자의식이나 자존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뒤진 산업기술력을 보호하려는 심정이라고 생각한 것은 나만의 독단 일지도 모르겠다.

파리를 출발한 지 한 시간만에 제네바에 닿았다. 스위스가 관광국이라는 사실은 공항에서 출입국 관리에서도 느껴진다. 여권을 제출하면 슬쩍 한 번 쳐다보는 싱긋 웃고 우리나라나 북미주 국가와 달리 혼란 도장도 찍지 않고 여권을 반납해 준다. 받아보니 아무 도장이나 서명은 물론 표시도 없어서 스위스에 왔다가 갔다는 소위 증명서류도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처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정신이 든 것은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호텔에 가니 38스위스프랑이라는 계산이 나와 36,000원을 지불하였는데 거리를 보고 우리와 비교할 때 약 3배가량이었음을 알았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방문하고 이곳에서 여행과 자연을 즐기는 것은 공항에서와 같은 편리한 점도 기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예약을 일찍하지 않아 경제적인 호텔에 투숙하지 못하리라는 짐작은 이미 하였지만, 인터넷과 여행사를 통하여 시도하여 결정된 숙



파리의 ACT-UP 회원들이 개도국과 후진국의 치료제 부족현실에 대해 시위하고 있는 모습

소인 포스타(four star) 급 호텔베트로폴은 우리나라의 장급에도 못 미치는 느낌이었으나 그들 사이에는 Churchill, 브람스등이 숙박하였다고 선전하는 광고물로 자랑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것을 보고는 역시 스위스는 볼가까 비싼 나라라는 것을 제삼 실감하였다. 또한 우리가 바가지를 쓴 것은 아니구나 하는 위안을 얻고자 하였다.

숙소를 옮긴 경우에 잠 못 이루는 경우 가끔 효력을 보던 멜라토닌을 8~9시간의 시차에 적응하려 비행기 안에서 복용한 덕에 잠자리에 잘 들었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아침이 되었다. 오전 7시에 도착한 팔렉스포 콘벤션 센터에서 등록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학회 초록이 든 가방을 받고 보니, 이미 오전 6시 30분부터 Satellite 심포지움이 개최되고 있어 들어가 보니 최근 개발된 혈중 RNA copy number의 측정방법이 토론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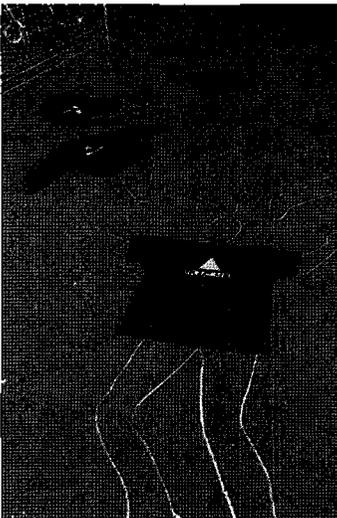
있었다.

9시 특강에서는 예방에 대한 주제로 후천성면역결핍증 vaccine의 그간의 개발과정 현재 임상시험과 향후의 발전 그리고 선결 되어야 할 점들이 미국과 프랑스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루어졌다.

이번 학회에서도 A군은 기초과학 B군은 임상과학과 진료 C군은 역학, 예방, 공중보건 D군은 사회과학 행동과학으로 분류되어 각군마다의 심포지움, 구연, 포스터구연, 질의 응답을 통한 토론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바이러스(HIV) 복제의 분자생물학적 기전에 대한 심포지움과 임상진료에서 겪는 문제점이 같은 시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반부는 분자생물학, 후반 1시간은 임상진료로 왔다 갔다하였다. 그러는 동안 냉방장치가 잘 되고 있는 제네바의 팔렉스포 콘벤션센터도 학술대회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

다. 사실은 나의 발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실감해서 었는지 모르겠다.

과거의 학술대회는 오후 5~6시 정도면 강좌가 종료되어 주위의 풍물을 감상할 여가가 있었는데 2년마다 개최되어서 그 동안의 신속하게 변화하는 기초과학과 치료제의 개발, 임상진료, 사회의학적 관점에서의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시간이 불충분하였는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의 워크샵과 패널회의 그리고 오후 8시부터 10시30분까지 시행되는 상업적 심포지움까지 진행되고 있어 비경제적이라고 느꼈던 의구심이 어느정도 해결된 것은 사실이었다. 물론 이시간에 진행되는 회의나 심포지움에는 식사가 제공되었다. 그럼에도 도착이틀날인 29일에는 오후 8시 심포지움에는 체력적 문제로 인하여



문화프로그램 "성역"



'Names Project AIDS Quit' 단체에서 6백개의 패널을 전시하고 있는 모습

참석하지 못하고 민생고를 해결한 뒤 침상에서 30일 오전 6시 30분 심포지움에 참석할 시간표를 확인한 뒤 둘째밤을 보냈다.

다음날인 6월30일 오전6시30분의 심포지움은 인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대한 새로운 치료약제에 대한 시간이었었는데 이들중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HBV)에도 상당한 효과가 시험관에서 관찰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용하게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로 판단되어 흥미로웠다. 8시부터는 전날의 새로운 지견을 요약해서 발표하여주고 9시부터는 기초과학의 특강인 인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대한 것이었는데 Fauci 등의 대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알려주었다.

사회의학면에서는 인구이동, 사회를 기반으로 한 연구, 역학 그리고 국제적인 개원마련과 정책수립에 대하여 열띤 토론의 장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관심이 있는 항 AIDS치료제에 대한 조그마한 진전도 놓치지 않으려고 샌드위치한 조각으로 점심을 때우고 포스

터 장을 누비고 보니 다리가 마치 마라톤을 한 느낌이었다.

몬트리올에서 2년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치료의 대가들이 모여 소위 병합요법에 의하여 혈중 HIV RNA 농도가 측정되지 않을 만큼 조절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당시 대가들의 앞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Activist들이 한가지 돌발사건을 일으켜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하였기 때문에 제네바에서는 이들의 보호와 참가공간을 변형 축소하여 입상의 위주로 바꾸었음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소위 해프닝은 발생되지 않았다. 김이 빠진 느낌도 약간 들었다. 이번에는 지속적 치료와 내성이 발현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법으로 핵산역전사효소억제제(NRTI) + 단백질분해효소억제제(PI)를 조기에 지속하고 내성이 있을 경우 모든 약제를 교환하는 것이 주요 처방으로 등장하였다.

Montaner가 특강으로 98년 항리트로바이러스치료에 대한 최고의 강연을 하였으며 혈중 HIV RNAcopy 농도가 50이하가 되도록

록 하면 또 장기간 지속된다면 림프절, 뇌척수액등에서도 점차 억제될 수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약복용이 양이 많아 이탈되지 않도록하는 방안이 중요하였는데 실질적인 이탈방지법이 토의되었다.

이중에는 과거 결핵약처럼 두가지를 일정용량으로하여 제조하는 방안도 거론되어 주목을 받고 실제 판매도 되고 있었다. 마지막 특강으로는 그동안 자외반 타외반으로 고개숙인 사람이었던 Gallo가 HIV 가 질병을 일으키는 과정과 치료에서 본 의미라는 주제로 정리 발표하였다. 비록 그가 옳지 못한 일을 한 시기에 하였다 하더라도 많은 지식과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여 이야기 하는 것은 역시 그는 대가였음을 시사하는 것이고, 속으로는 한 번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

동행하셨던 최강원 교수님의 논문 발표가 우리나라 AIDS환자의 유전자 이형을 주제로 있었다. 주위에서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 분이 있는지 둘러보았으나 국립보건원의 이 주실 박사 외는 유럽과 북미주에서 공부하고 있는 연구자들뿐으로 역시 이곳에서도 경제의 영향은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후 세시에 국제 후천성면역결핍증학회와 미국의 대가들이 모여 1998년 치료 지침을 발표한 것은 몬트리올에서의 결과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실제 임상에서의 궁금증에 대한

이번 회의에서 느낌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 회의를 개최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했고 이번 학회에서 중요했던 점은 치료방침에서 병합요법이 여러종류의 약제로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답을 제시한 것이다.

중례별토의와 요약으로 초기 치료의 조건이 완화되어 조기에 1 PI + 2 nRTI, 1 NNRTI + 2 nRTI, 2 PI ± 1 or 2nRTI 등으로 시작하고 내성이 발견되면 모든 치료제를 교환하거나 아직 연구보고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hydroxyurea를 고려하는 것과 내성을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금년의 치료 지침의 중요 요소이다. 물론 여러 종류의 새로운 항 AIDS치료제가 등장하였고 임상연구에까지 이르게 된 예방접종의 진전도 이번 학회의 빼놓지 못할 사실이다.

어느덧 귀국날짜가 다가오고 학회도 끝나는데 스위스제네바는 팔렉스포 콘벤션센터와 메트로폴 호텔 그리고 첫날 빼고는 타고다닌 taxi-bus만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버스 2대를 붙이고 가운데는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동력을 받은 전기를 이용한 차로 좁은 길에도 잘 달리고 있었다.

귀국일정에 맞도록 하려고 푸랑 크푸를트 공항으로 가기 위하여 기차를 탑승하였는데 식당차가 없

어 우리나라의 홍익회 사업과같이 차내 도시락 판매원에게 햄버거를 신청하였더니 신용카드를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김 준명교수의 주머니에 남아있던 스위스 돈으로 무사히 위기를 극복하였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수면에 들면서 느꼈던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학회를 개최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 학회의 중요하였던 점은 치료방침에서 병합요법이 여러종류의 약제로 시도되고 있었으며 동시에 hydroxyurea 의 역할이 언급되었고, 다른 항균제와 마찬가지로 항리트로바이러스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문제가 되어 여러 치료제의 병합이 결핵에서 처럼 모두 대체하는 것을 권유하였으며 가능하면 조기에 시작하는 점이었다. 물론 주제에서처럼 세계적인 차이를 극복하기위한 방법으로는 제약회사의 가격까지 제3세계에서 언급하는 것은 문제점을 솔직하게 토론하려는 자세로 기억에 깊이 남았다. [Ⓐ]